



2018-1학기 (신학)대학원

지혜 문헌 연구

담당: 이 희 학 교수



들어가는 말

참고논문 및 학기말 과제

1.참고논문 및 도서

- 1)W.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 9-37(문화의 종교적 경시자)
- 2)문희석편, 오늘의 지혜문학연구, 87-112(서인석, 이스라엘 지혜문학의 토착화 과정)
- 3)이희학,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와 '이방계집'의 번역문제 - 잠언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1호(2007년 10월), 대한성서공회
- 4)이희학, 잠언의 수집과 최종편집, 신학과 현장 21,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 2011
- 5)이희학, 고대 이스라엘 지혜의 '삶의 자리'와 잠언의 신학적 특징, 신학과 현장 22,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 2012
- 6)이희학, 잠언 1장 1-6절과 5장 7-14절의 주석적 연구, 신학과 현장 24,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 2014
- 7)각종 주석서(대한기독교서회, WBC, 한국신학연구소 등)

발표 및 학기말 과제

2. 학기말 과제: 본문 분석 및 설교 노트

- 1)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교훈(4:20-27)
- 2) 어리석음과 악에 대한 네 개의 경구(6:1-19)
- 3)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언어생활(12:1-28)
- 4) 화목한 가정과 불화하는 가정(17:1-28)
- 5)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22:22-23:11)
- 6)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23:12-35)
- 7) 사귄 친구와 피할 친구에 대한 말씀(24:13-22)
- 8) 유능한 여인 송가(31:10-31)

들어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① 그 동안 구약학계에서는 **지혜문헌**(욥기, 잠언, 전도서)의 연구를 등한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a. 하나님의 구원사건(구속사)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음

- 족장사, 출애굽 사건, 광야 유랑사건, 시내산사건, 땅 점유 사건 등에 대해 침묵
- 시온 전승, 계약사건, 법궤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고백이 등장하지 않음

b.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

- 다윗 왕국, 예루살렘 선택, 왕국의 멸망 등에 대해 침묵
-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들에 무관심

들어가는 말

c.내용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는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적

- 지혜문헌: 위험과 화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
- 지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적절한 행위로 소개
- 지혜: 친구,이웃,가족,윗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줌(처세술)**
- 개인의 운명과 개인의 성공에 관심

들어가는 말

d.기독교 전통신학에 위배된다고 생각

- 전통 신학: 인간은 죄인,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 :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 강조
 - : 인간의 능력과 선에 대한 부정
- 바울-어거스틴-루터 신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 지혜문헌의 메시지: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의 책임
 - : 인간의 주권을 더 강조
- 구원, 언약, 율법, 선택에 무관심

들어가는 말

② 구약학계의 대표적 학자 **G. von Rad**도 동일한 입장

- '구약성서신학'을 저술하면서 지혜문학을 완전 삭제

→ 1권 : 6경 전승의 신학(1957)

2권 : 예언 전승의 신학(1960)

. 이것을 **구약신학의 전부**로 간주

- 폰 라드는 **지혜문헌**이 인간의 실제 경험, 성공적인 삶, 행복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제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간주**

들어가는 말

- 즉 지혜문헌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고백이 나타나지 않음
 - :하나님 중심적 구원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다.

→ but 학자들은 폰 라트의 이러한 성서해석을 비판

:그러자 폰 라트는 10년 후 1970년도에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이라는 단행본을 출판
(구약성서신학 3권)

③이후 지혜문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

. 특히 C. Westermann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

들어가는 말

a. “구약신학의 요소”(1978년)라는 책에서

→ 구약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Dialogue)로 간주

(1) 5경/역사서/예언서 - 하나님의 구원행동(action)에 대한 진술

(2) 지혜서(성문서) -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response)

⇒ 말을 통한 응답(찬양, 탄식, 감사)
행동을 통한 응답(계명, 율법, 예배)
묵상을 통한 응답(경건, 자기 성찰) }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들어가는 말

b.1990년 “지혜의 뿌리/근원”라는 책에서

:지혜문헌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야웨 신앙과의
관계를 역설

⇒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지혜의 뿌리는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웨 신앙 깊은 곳으로부터
출발한다. 거기에서부터 구두전승으로 세대를 거쳐 짧은 형식으로
이어져 내려간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절기를 통해 역사신조**만을 낭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삶, 생활 전체로의 **지혜 격언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 개입을 고백했다는 것**

:지혜는 '**제의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제의**를 통해서도 **공동체의 생활(지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임

∴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신중심적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theocentric humanism)

→ **"신학적 인본주의"**

들어가는 말

④와이브레이(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1990)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1994)

→고대사회에서 세속적인 삶, 신앙적인 삶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 성과 속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즉 세속적인 지혜가 야웨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님

들어가는 말

⑤ 캠프(C. V. Camp)

-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1985)
- The Female Sag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Biblical Wisdom Literature(1990)

→ 잠언 1-9장 : **신학적 지혜**
10-31장 : **세속적 지혜**

- . 쌍을 이루고 있어서 “성과 속”의 이원론이 극복
되도록 편집

들어가는 말

⑥ 브루지만(Wurggemann)

- “문화의 종교적 경시자”라는 논문에서

:기독교가 인간의 삶, 역사, 문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종교적 경시자들의 잘못된 태도

→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1) 지혜문학 - 인간은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

2) 전통적 인간 이해 - 신뢰할 수 없는 人間

죄인인 人間

심판 받을 공동체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II.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①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고대근동의 지혜문학에 속하며 그 일부이다.

⇒ 이스라엘은 고대근동의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서 성장

⇒ 야웨종교는 고대근동의 종교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대화하면서 야웨종교의 독특성을 만들어감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② “지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혜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혜와
긴밀한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구약의 본문은 고대근동의 지혜를 몇 군데에서 언급

창 41:8 ~ 고대 이집트의 술객, 박사들이 꿈을 해몽

출 7:11 ~ 아론과 애굽의 박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듦

왕상 4:30 ~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인간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사 19:11-15 ~ 애굽의 지혜에 대해 언급

➡ 지혜의 의미: 1)꿈 해몽 2)마술능력 3)올바른 선택 능력
(이스라엘의 지혜 개념과는 좀 다르다)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이스라엘의 지혜 개념과 다른 고대 근동의 지혜는
아카드의 지혜에서 잘 나타남

→아카드어로 지혜는 네메쿠(nemequ)

1)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제의와 마술을 위한 기술과 징조의 해석을 의미

2)지혜 : 특정계층의 점유물로 등장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 ③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지혜가 **애굽,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와 유사점이 발견되는 반면,
팔레스틴(가나안+시리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음

<애굽,메소포타미아 지혜와의 유사성>

-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 1) 합리적으로 해결 시도: 세계질서에 대한 통찰을 통해
 - 2) 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풀려고 시도

즉 1)지혜 = 세계의 질서, 균형을 다루게 하는 질서를 아는 것
2)지혜 = 신적인 세계질서로의 적응/순응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④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학에 관한 간략한 소개

1) “지혜”가 문학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

-이스라엘의 지혜운동보다 2,000년이 앞선다

2) 대부분의 지혜문학은 전문적인 지혜교사들에 의해
손질된 순수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음

3) 모든 지혜문학은 운문으로 작성됨

-댓구, 대조의 문체가 지배적

⇒ 선·악/선인·악인/지혜로운 자·우둔한 자/부지런한자·게으른자

-전승이 쉽고, 가슴 깊이 새겨짐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⑤ 고대 근동지역에서 **기원전 3000-2000년 사이에 지혜문학이 시작된 이유**

-이 시기에 놀라운 문화적, 역사적, 문명적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

1)이 시기에 도시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왕정이 확립됨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만들어졌다.

2)왕국의 시작과 함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의 왕위등극사, 왕위계승사 기록
(기원전 1000년경)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3) 물질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건축술, 측량술 등의 고대과학이 발달하여 왕궁 및 신전 등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건립됨

-고대 바벨론 제국(기원전 1830-1550)이 만든 지구라트

→ 우르의 지구라트

-길이 61m/ 넓이 45.8m/ 높이 21.3m

-애굽의 피라미드(기원전 2550-): 현재 70기가 남아 있음

→ 쿠프 왕의 피라미드: 40층 높이/ 200여 계단/18톤 싣는 화물차로 37만대 분량/돌-개당 2.5톤/총석재의 양-600만톤/
원래 높이: 147m/ 현재 높이 137m/ 밑변 230m



독일 베를린
의 박물관
섬

페르가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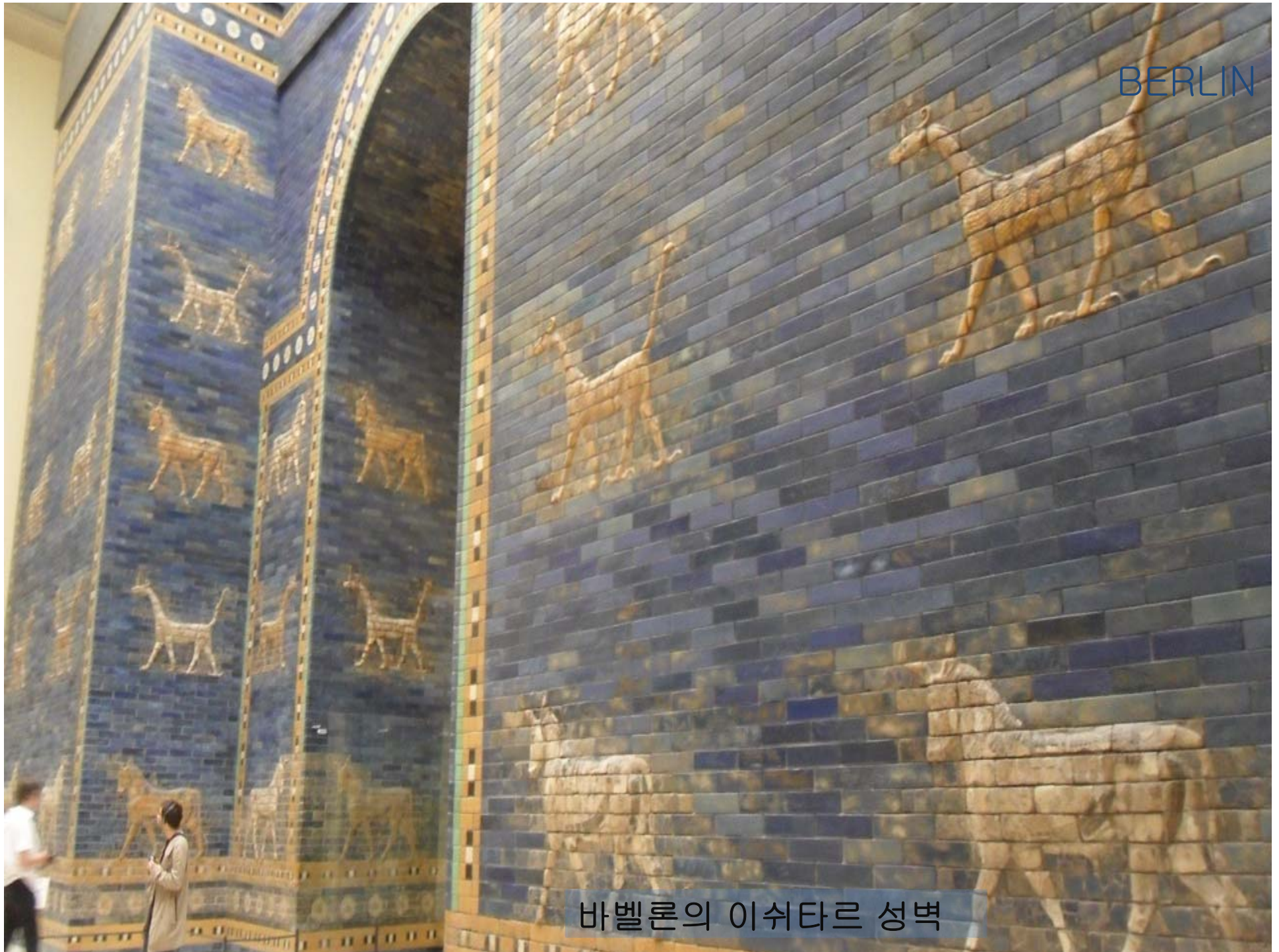
페르가몬 박물관 내 페르가몬 제단



바벨론의 이쉬타르 성문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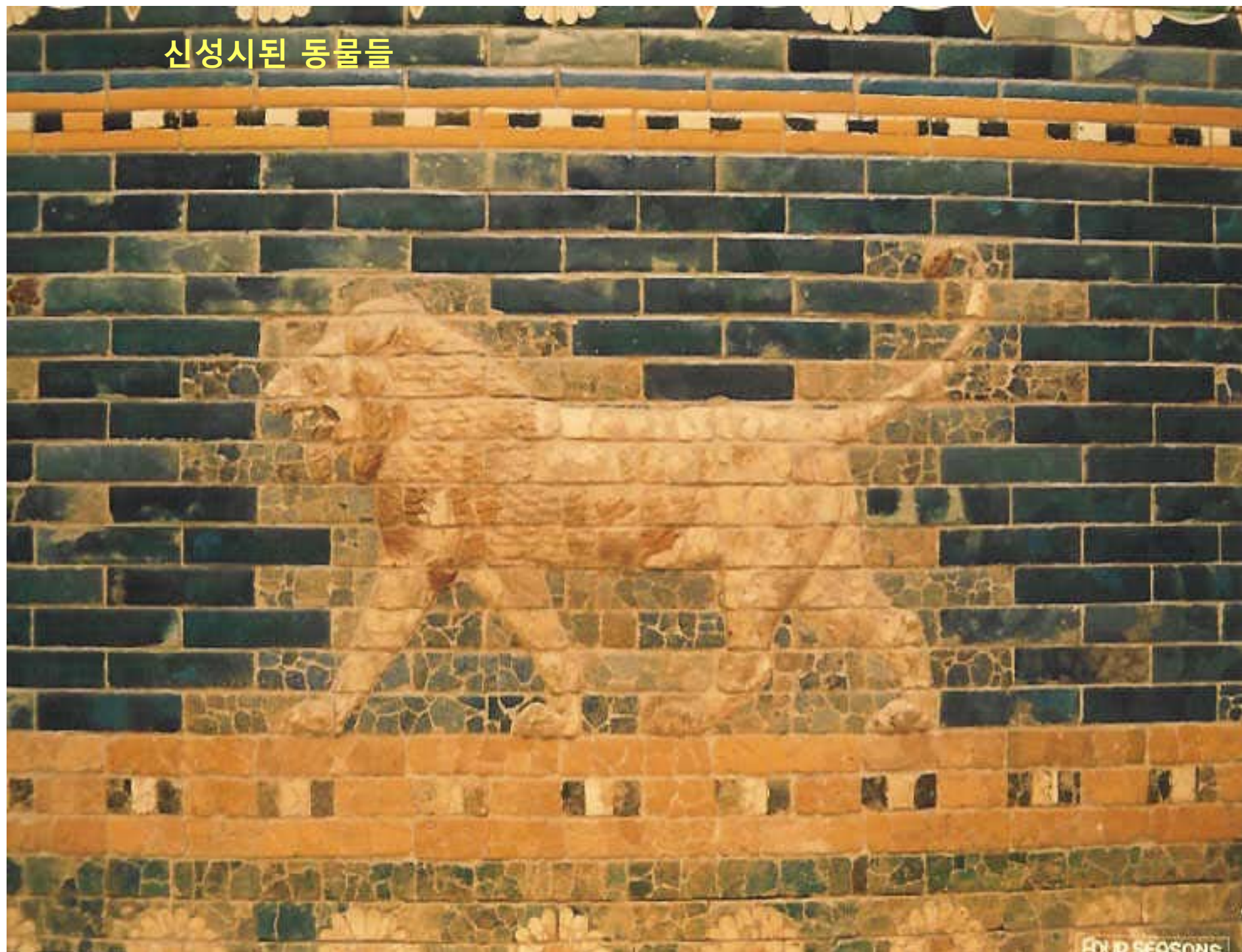
바벨론의 이쉬타르 성벽





바벨론의 이쉬타르 문의 벽면

신성시된 동물들



신성시된 동물들





이쉬타르 성벽



함무라비 법전:
원본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바벨탑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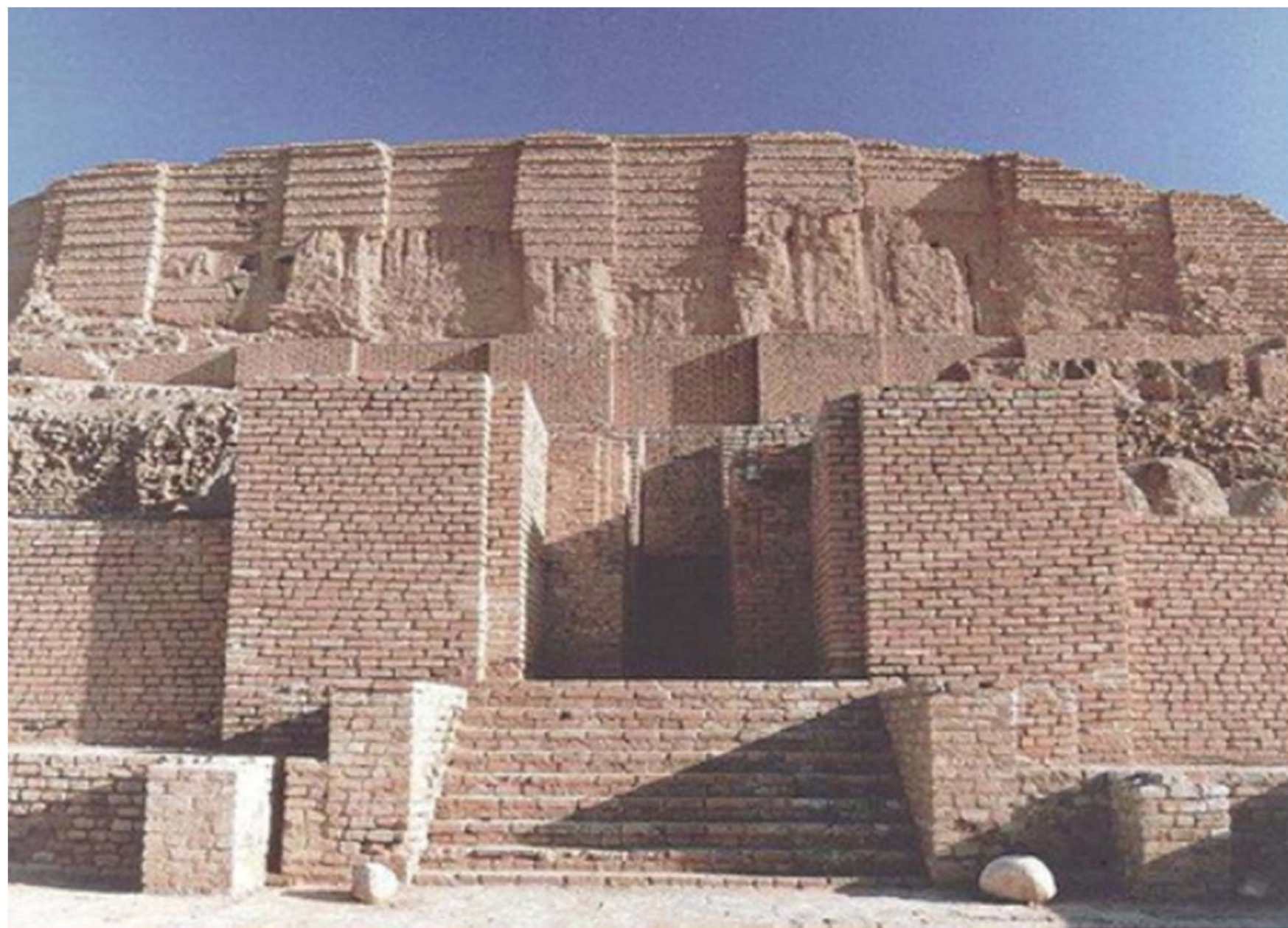
이란 초가잔빌 유적지 전경



남쪽 정문



서쪽



북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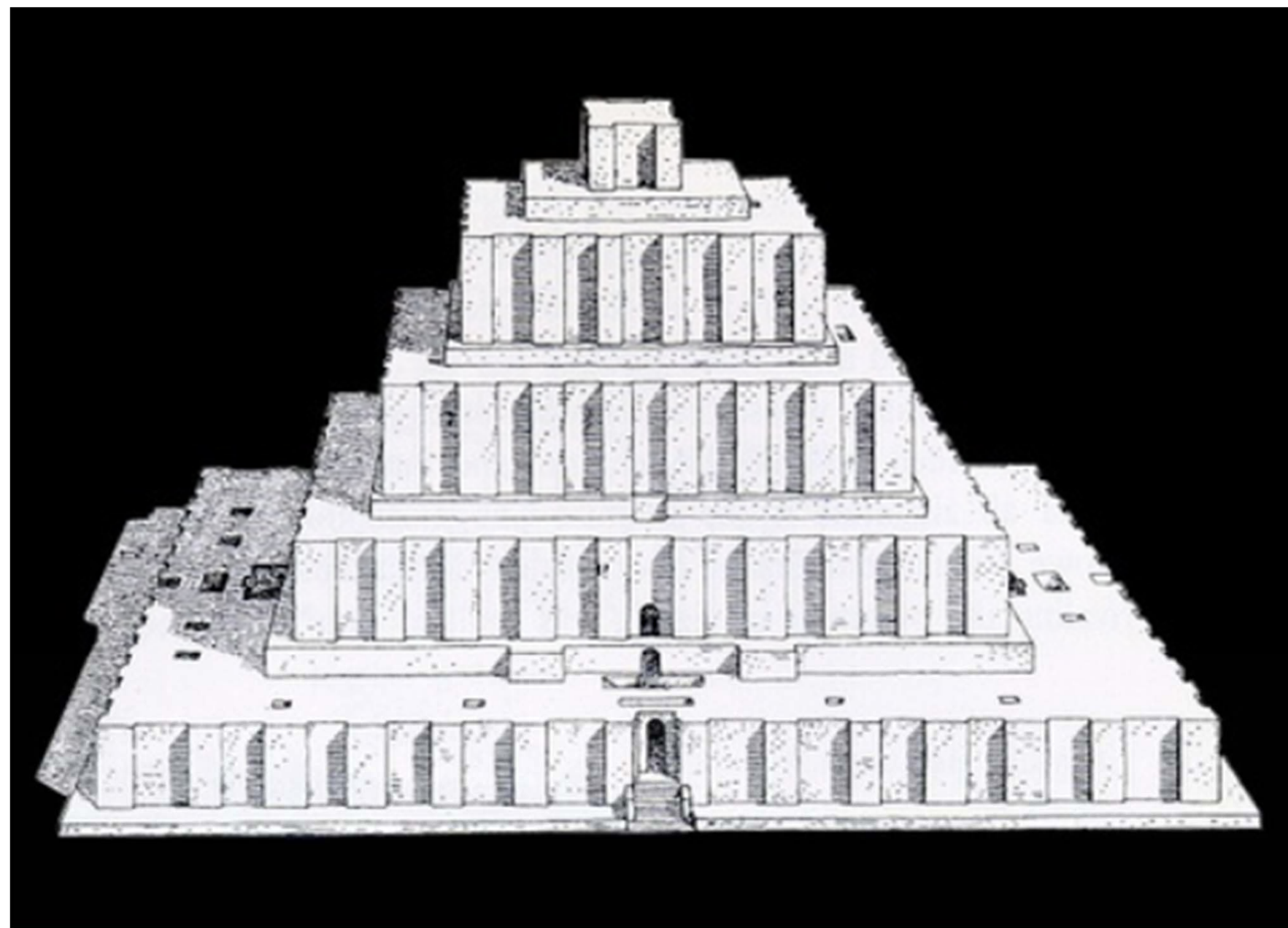


남서쪽 문과 제단



우르의 지구라트





초가잔빌 지구라트의 원래 모습















By Tour Of Wind



By Tour Of Wind



By Tour Of Wind





By Tour Of Wind



By Tour Of Wind



By Tour Of Wind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4)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과 지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 인간의 이성을 통한 자연 현상, 인간사회 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시작

→ 자연, 사회,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성적 탐구와 사색은 지혜운동을 낳게 된 토대

→ 여기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탄생한다.
philo(사랑)+sophy(지혜/헬-sophia)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일어난 **지적인 탐구와 학문적 활동을** 우리는 '**지혜**'(wisdom)라고 부르는 것이다.

1)지혜운동(wisdom movement)

-이성적 학문 활동에 종사하던 지혜자들이 행하는 **지적인 활동, 학문적 탐구활동**을 지칭

2)지혜전승(wisdom tradition)

-지혜운동이 끊이지 않고 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⑥ 고대근동의 '지혜'는 세 종류로 구분

a. 자연과학적 지혜

- 고대근동의 자연과학적 지혜는 놀라운 정도로 발달
- 애굽,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적인 지식의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이며, 기하학, 물리학, 수학, 측량술, 건축술 등을 발전시킴

예) 애굽의 피라미드 -기원전 2500년 전 만들어짐, 평균무게 2.5톤의 잘 다듬어진 돌이 약 200만개 이상

-모래 땅의 사막지대에서 아직도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4500년 동안 견고히 서있음

-피라미드의 기초공사는 아직도 수수께끼

<기원전 2000년대에 놀라운 자연과학적 지혜를 소유했음을 증거>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b. 실용적 지혜

-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지혜 → 오늘날의 **사회과학**
- 무질서해 보이는 인간사회이지만 그 밑에는 어떤 합리적인 법칙, 원칙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찾는 지혜
- 애굽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법칙과 원칙을 **마아트(ma'at)**라고 부름

→人間이 이 **마아트**에 순응해서 살아가면 행복, 성공이지만,
반대로 **역행**하면 불행, 실패이며 질병을 얻는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길을 터득하는 방법을
암기하기 쉬운 잠언 형태로 기록하여 전하고 있음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c.사변적 지혜 -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혜

→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 고통의 문제(특히 의인의 고통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가치의 문제, 선·악의 문제 등을 고심하고 사색

→ 많은 고대근동의 지혜문헌은 사변적 지혜문학으로 남아 있음